

韓國의 牛乳利用에 관한 史的考察

李 盛 雨

漢陽大學校 食品營養學科

I. 緒 論

우리나라는 傳統的으로 乳文化圈 밖에 있으니 牛乳의 利用이 本來부터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史的文獻에 의하니 三國時代에 牛乳加工品이 나오고, 또 日本의 文獻은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牛乳利用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高麗時代나 朝鮮時代에도 王家나 貴族層에서는 牛乳利用이 이어졌다. 이에 牛乳의 利用形態나, 牛乳利用과 農耕과의 關係를 史的으로 考察코자 한다.

II. 古代의 乳文化

人類는 일찍이 여러 動物의 糞을 食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朱蒙이 말의 糞, 甄萱이 범의 糞을 먹었다는 것이며,¹⁾ 메소포타미아에서는 7000年前 소를 家畜化하면서 牛乳를 먹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中國에서는 殷時代에 牛乳를 가리키는 甲骨文字가 나타났다. 殷나라 사람들은 西北部의 遊牧民과 交渉이 있었기에 의례 乳利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2,3)} 또 中國 本土의 牛乳는 佛敎와 함께 들어오기도 하였고, 唐代에는 西域과의 交渉이 많으니 乳製品의 導入이 더욱 많아졌다.

그러나 오늘날 中國의 乳利用은 주로 萬里長城 以北의 몽고族이나 牧畜文化를 갖고 있는 少數民族 사이에만 盛行하고 있다. 그리하여 東아시아는 傳統的으로 世界의 乳文化圈에서 除外되고 있으나⁴⁾ 그렇다고 하여 乳文化和 아무런 因緣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乳는 嗜好品이나 藥으로 쓰여왔다. 다만 食生活에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지 못한 것 뿐이다.

印度에서는 석가모니가 오랜 苦行으로 衰弱한 身體를 牛乳에 의하여 恢復했다고 한다. 佛敎에서는 戒律로서 肉食을 禁하고 있으나 牛乳는 飲用하고 있다.

佛敎가 中國에 傳來된 것은 1世紀 中葉이고, 우리나라에는 4世紀, 日本에는 6世紀初에 傳來되었다. 이 때 佛經과 함께 醫書도 들어왔으니 이들을 통하여 牛乳 및 乳製品에 관한 知識도 얻었을 것이다.⁵⁾

그런데 佛經인 「涅槃經」에 의하니 “牛에서 乳가 나오고, 乳에서 酪을 내며, 酪에서 生酥(蘇)가 나오고, 生酥에서 熟酥가 나오며, 熟酥에서 醍醐를 내는데 醍醐는 五味의 最上이다”고 하였다.^{4,5)}

佛敎가 中國에 들어오기 以前의 戰國時代에 이륙되었다는 「神農本草經」에는 乳 및 乳製品에 관한 기록이 없고 佛敎가 中國에 들어온 後로 東晉(317~426) 葛洪이 지은 「肘后備急方」, 「崔氏食經」(?~450)에 乳가 나타나고, 「神農本草經集注」(6세기초)에서는 牛乳에 관한 구체적인 說明이 나온다. 곧 “乳에서 酪을 만들고, 酪으로부터 酥를 만들며 酥로부터 醍醐를 만든다. 醍醐는 酥의 精液으로서

좋은 酥 1石에서 3~4升의 醍醐가 나온다”고 하였으며, 또 이들의 效能에 대하여 “牛乳의 性は 微寒이고 虛弱을 補하며 목마르는 증세를 다스린다. 그리고 酥는 姓이 微寒이고, 五臟을 補하며 大腸을 통하게 하고 口瘡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唐時代의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 孟詵의 「食療本草」에서도 「神農本草經集注」와 같은 效能을 說明하고 있다. 이들 概念은 中國人이 本來 經驗한 것이 아니고 西域 특히 인도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遺事」에 의하니 龍이 소먹이는 사람이 되어 王에게 乳酪을 바쳤다는 말이 나온다. 牛乳製品에 관한 첫 記錄이고, 三國時代의 우리나라에서 牛乳 및 牛乳製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⁷⁾

그리고 三國時代의 우리나라에서 牛乳 및 牛乳製品을 食用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日本의 資料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智聰의 아들 福常(善那라고도 한다)은 孝德天皇(645~654)때 牛乳를 짜서 天皇에 바쳤으니, 이것을 마신 天皇은 매우 좋아하고, 牛乳는 人體를 健康케 하는 藥이라 하면서 和藥使主(아마도구수리노오미)란 姓을 내리고, 그의 子孫은 代代로 이 業을 傳하여 朝廷에서 勤務케 하였다는 것이다. 孝德天皇은 牛乳院을 두어 每日 一定量의 牛乳를 공납시켰다.

그리하여 日本에는 福常以前에 牛乳를 飲用하는 습관이 없었기에 福常을 乳祖로 삼았다. 이 事實로 미루어 우리나라 牛乳 食用은 日本에 傳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6)}

그리고 唐代의 「本草拾遺」에서는 牛乳를 마실 때는 반드시 한 두번 끓여서 냉각된 후에 마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三國時代의 우리나라에도 이 方法이 도입되어 있었다고 짐작되며 當時의 衛生醫療의 概念을 짐작할 수 없다.

그런데 牛乳는 保存性이 좋지 않기 때문에 王에게 바치고 남은 것이나 地方에서 宮中에 貢納하기 위하여 牛乳를 농축하여 保存性을 높였다. 이것은 「通俗文」(漢代)에 의하니 牛乳를 농축한 것을 酪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日本의 「倭名類聚抄」(和名抄, 930~935)을 풀이한 「箋注倭名類聚抄」에서는 酪을 乳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따라서 酪 곧 乳粥은 오늘날의 물은 煉乳 비슷한 것으로 牛乳보다 保存性이 높고 營養價도 높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朝鮮時代에 牛乳에 穀物을 섞은 것을 乳粥 또는 酪粥이라 하였다.

한편 日本의 「延喜式」(901~922)에 의하니 牛乳를 1/10 이하로 농축한 것을 酥라 하였다. 酥는 蘇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本草綱目」에는 蘇를 藥에 넣을 때는 약한 불에 녹여서 쓴다고 하였으니 蘇는 固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蘇는 광주리에 넣어 운반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매우 진한 煉乳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和仁氏는 1/10 농축에 對하여 異議를 내고 있다.⁷⁾

日本에서는 文武天皇 4年(700) 全國에 命하여 酥를 만들게 하고, 元正天皇의 養老 6年(722)에는 全國에서 酥를 광주리에 넣어 貢納시키고 있다. 이 酥는 日本에서는 平安時代(794~1192) 末期頃에 中斷되어 現代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日本의 牛乳食用은 우리나라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日本의 酪과 酥는 다같이 우리나라에서 간 것이고, 이로서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酪과 酥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⁸⁾

傳統的인 乳文化圈 밖에 있는 東아시아 民族이 오늘날은 牛乳製品이란 의례히 cream, butter, cheese, condensed milk 등만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全世界의 牛乳加工의 system이 地域과 時代에 따라 가지가지이고,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牛乳加工의 system이 유럽과는 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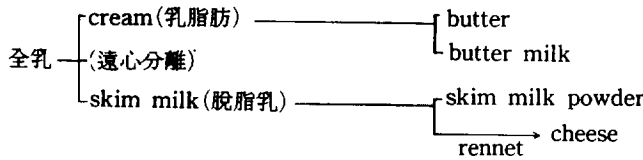


그림 1. 유럽式 乳製品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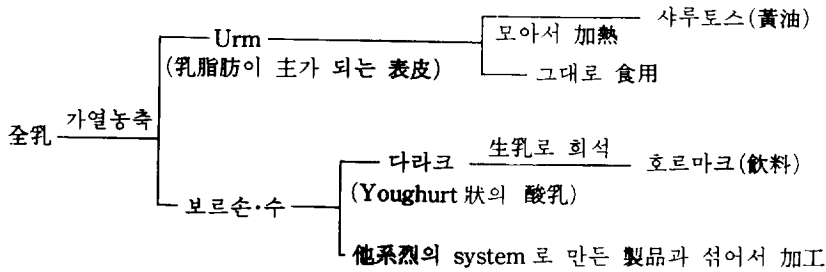


그림 2. 몽고式 加熱濃縮에 의한 乳製品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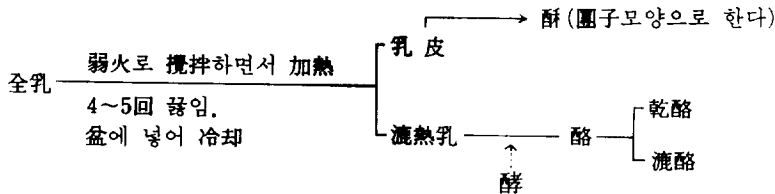


그림 3. 齊民要術式 乳製品의 system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代表的인 牛乳加工의 system 을 圖示하면 <그림 1~3>과 같다.²⁾ 유럽에서는 遠心分離하여 牛乳의 各 成分을 나누고, 몽고나 中國에서는 加熱하여 各 成分으로 나누어 加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各 成分으로 나눈 흔적이 없고 간단히 농축한 것이 酪이고 충분히 농축하여 煉乳狀이 된 것이 餡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牛乳는 인도, 몽고, 中國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加工 system 을 成立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實際의 乳製品이 本草學의 乳製品의 概念과 달라진다. 그리고 本草學이나 日本古代의 乳製品은 유럽型的 乳製品과 關聯지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다.

III. 高麗時代의 乳文化

牛乳食用은 高麗時代에도 이어졌다. 「高麗史」列傳에 의하니 李陽植의 부인 朴氏가 딸의 장대에다 燈을 달아놓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로써 아들을 낳게되니 소청해서 낳았다고 하여 李請이라 하였다. 장성하매 이름을 李純祐로 고쳤다. 明宗(1170~1197)때 皇太后가 乳腫으로 고생하자 御命을 받고 기도문을 썼는데 이 글이 王을 感動시켜 王의 信任을 받게 되었다.

그가 諫議大夫로 있을 때 다음과 같은 上疏文을 올렸다. “요즘 八關會의 行事に 醫官을 命하여 서

을 번두리 農民들의 農牛에서 젖을 짜고, 이것을 달여서 酥를 만드니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傷하게 됩니다. 그 藥이 急한 것도 아니면서 農牛를 손상시키니 淸컨대 이를 苛하소서”라고 하였다. 王이 이에 따르니 백성들이 感悅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牛乳를 달여서 酥를 만들었다고 하니 三國時代의 乳製品에 관한 推測이 事實로 確認되었고, 酥를 藥이라 하니 牛乳가 飲用보다 藥의 概念으로 쓰인 것도 確認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宋時代의 牛乳를 짜고 牛乳를 달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¹⁰⁾ <그림 4>



그림 4. 宋時代의 煮牛乳圖

여기서 牛乳를 달이고 있으니 煉乳인 酥를 만드는 것 같다. 「齊民要術」式이면 위의 겹질을 걸어내는 모습이 보일터인데 그런것은 아닌 것 같다.

또 「高麗史」에 의하니 忠烈王 23年(1297)에 人蔘과 濟州島의 酥油를 元나라에 바쳤다고 한다. 몽고사람들이 高麗에 들어와서 農牛를 強制로 徵發하다보니 高麗에 農牛가 거의 없어졌다. 몽고사람들은 濟州島가 牧場으로서 天惠의 條件을 갖추고 있음에 着眼하여 여기에 一大 牧場을 開設하니 여기서 濟州島 牧場이 시작되었고 많은 牛를 飼養하여 酥油를 만들어 元나라에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역시 「高麗史」에 의하니 禡王은 國家常設機關인 乳牛所까지 두었다. 禡王 11년(1385)에 王이 사냥가는 도중에 乳牛所를 지나가다가 소가 파리하게 衰弱해진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膳夫(司饗院의 從七品 雜職)에 命하여 牛酪을 바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다.

乳牛所에서는 牛乳 및 乳製品을 王에게 올리고 王은 近臣에 保養食으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이 制度는 朝鮮時代로 이어졌다.

高麗時代의 酪과 酥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또 日本 平安時代의 「醫心方」(984)에서는 “牛乳와 酥酪은 全身의 衰弱을 補하고 肝을 強化하며 便秘를 막고 皮膚를 윤택케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¹¹⁾ 本草書에서 酥와 酪을 구별하여 쓰고 있으나 實用的으로는 地域에 따라 애매하던 것이 時代의 흐름에 따라 더욱 애매해져서 酥와 酪의 뜻이 뒤바뀌기도 하고 두루 뭉쳐서 하나의 名詞처럼 酥酪이라 해버리기도 한 것 같다.

IV. 朝鮮時代의 乳文化

石毛氏가 그린 15世紀의 搾乳分布圖²⁾에 의하니 東아시아는 搾乳圈에서 빠져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農耕에 從事하는 庶民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乳 및 乳製品을 一部 王家나 貴族層은 食用하고 있었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니 世宗 2年(1420)에 乳牛所의 設立目的은 王室에 대한 牛乳의 供上에 있고, 여기에 소속되는 사람이 200名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意外로 크고 農民에 대한 幣도 컸던 것 같다.

그러다가 世宗 20年(1438) 乳牛所를 폐지하고 그 建物은 東部學堂이 되어 버렸다. 上王(太宗)用의 乳는 仁壽府에서, 主上(世宗)에 대한 乳는 禮賓寺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成宗元年(1470)에는 司僕寺(宮中の 畜産을 맡아보는 官廳)에서 牛乳가 不足하게 되면 司僕寺所有의 不良牛를 農民의 乳牛와 바꾸게 되니 백성의 苦痛이 심하므로 今後는 적당한 價格으로 사들이도록 하되 70頭만 飼育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成宗은 계속 搾乳牛를 줄였던 것이다.

王이 農民을 걱정하여 젓의 利用量을 줄이고 있는데 비하여 벼슬아치들의 자세는 이와 달랐다.

中宗 6年(1511) 領議政 成希顔이 王에 아뢰어 “地方守令들이 牛乳의 供上을 핑계삼아 泌乳 中の 소에서 搾乳한 것을 스스로 먹고 난 후는 民家에 강제로 買受시키고 있으니 觀察使에 命하여 그들의 酪粥 食用을 금지시켜 주소서”라 하고 있다.

그리고 肅宗 即位年(1674)에는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어도 王이 특별히 下賜하지 않으면 酪粥을 먹지말라”고 하는 命이 내렸고, 英祖 29年(1753)에는 “옛날에는 大殿·大妃殿·世子宮에서 酪粥을 食用하였는데, 요즘 宮中에서 酪粥먹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니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니 이를 制約하고 젓짜는 소의 數를 줄이도록 하라. 옛 「禮記」에도 搾乳에 關한 記錄은 없지 않은가?”라는 敎書를 내렸다.

그리고 哲宗 7年(1856) 王은 藥院에서 올리는 酪粥을 정지시키고, 송아지가 젓을 먹지 않으면 家畜이 번식하지 못하니 어찌 無益한 일로써 害을 禽獸에 미칠 것인가고 하였다.

이와 같이 歷代의 王들이 農耕을 위하여 搾乳를 牽制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中宗때부터 牛乳의 飲用形態가 한결 酪粥만이다. 이것이 近代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正體는 무엇일까?

佛敎에는 八種粥이 있다. 그 가운데의 하나에 酪粥이 있는데 이것은 牛乳로 만든 酪에 쌀이나 조를 섞어 삶은 것으로 여러 居士들이 佛陀에 바친 것이다.

朝鮮時代의 「山林經濟」(1715)에 牛乳粥이 나온다. 이 책에는 牛乳粥 만드는 法 2種이 나와 있다. 하나는 中國 明時代의 「神隱書」를 引用한 것으로 “죽을 썬다가 반쯤 익거든 죽물을 따라내고, 牛乳를 쌀물 대신 부어 끓인 뒤에 떠서 사발에 담고 사발마다 酪 半兩을 죽 위에 부어 마치 기름처럼 죽에 고루 덮혔을 때 바로 저으면서 먹으면 비길데 없이 甘美롭다”고 하였다. 中國 明時代의 牛乳粥이란 佛敎의 酪粥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內局方 牛乳粥이다. 이것은 “牛乳 1升到 물 2홉을 부어 문근한 불로 잠깐씩 서너번 끓여 뜨는 거품을 떠내고, 다른 그릇에 心末(무리가루; 쌀을 濕式粉碎하여 한번 쪄 다음 말려서 가루낸 것) 2홉에 약간의 물을 타서 牛乳가 끓을 때 수저로 휘저으면서 心末을 타고 잠깐 한번

끓인 다음 끓는 소금물로 간을 맞추어 먹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규합총서」(1815년경)의 우유죽 만들기는 “쌀을 담갔다가 무리를 정하게 갈아반치고 생우유가 한 사발이면 무리는 다소 적게 섞는다. 물고 되기는 찻죽 알심크기로 먼저 쭈다가 반쯤 익으면 우유를 부어 섞어 쏜다. 이것이 內醫院의 우유죽 주는 법”이라 하였다.

그런데 牛乳粥과 비슷한 것이 中國에도 있었다. 이것을 中國 旅行記인 「燕行記事」(1777)에 의하니 中國에는 酪漿이 있는데 우리의 牛乳粥만 못하다고 하였으며 「燕行記」(1790)에서는 酪茶라 하였다.

中國이나 佛敎에서는 牛乳로 酥를 만든 다음에 이것으로 죽을 만들었고, 우리의 內局方은 牛乳로 바로 죽을 만들었다. 또 「朝鮮王朝實錄」에서는 酪粥이라 하였다. 酥粥·酪粥·牛乳粥은 서로 어떤 關係에 있을까? 「訓蒙字會」(1527)에서 酪을 타락→락, 酥는 타락→소라 하고 있다. 酪과 酥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이 두 글자가 다같이 타락 곧 牛乳를 가리키고 있으니 「朝鮮王朝實錄」의 酪粥은 「山林經濟」內局方 牛乳粥과 같은 것이라 짐작된다.

그리고 朝鮮時代의 文獻으로서 內局方 牛乳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¹²⁾

民天集說(1752), 增補山林經濟(1766), 攷事十二集(1787), 林園十六志(1827), 農政會要(1830年頃→乳粥), 群學會臚(1800年代 中葉)

內局方 牛乳粥을 아래 冊에서는 駝酪粥이라 하고 있다.

규합총서(1815), 夫人必知(1915), 方信榮의 요리제법(1931), 李奭萬의 簡便朝鮮料理製法(1934), 趙慈鎬의 朝鮮料理法(1938)

또 需雲雜方(1500年代 中葉)·要錄(1680年頃)에서 牛乳를 駝酪(駝 낙타→타, 酪 낙타→락)이라 하였으니, 內局方 牛乳粥을 駝酪粥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興仁門 밖에 駝酪山(酪駝山이라고도 한다)이 있어서 여기서 젓 짜는 소를 飼養하였던 것이다¹³⁾<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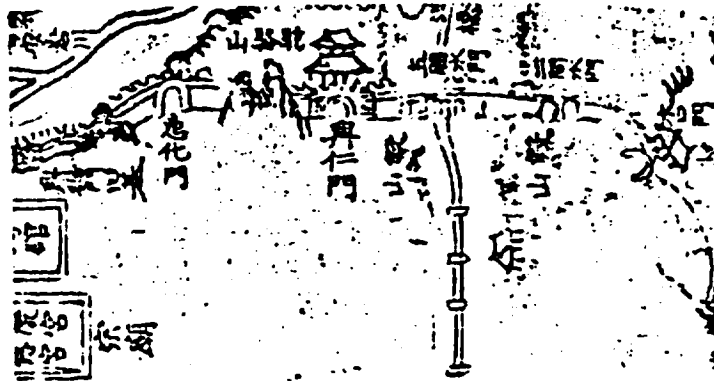


그림 5. 서울 옛 地圖속의 駝酪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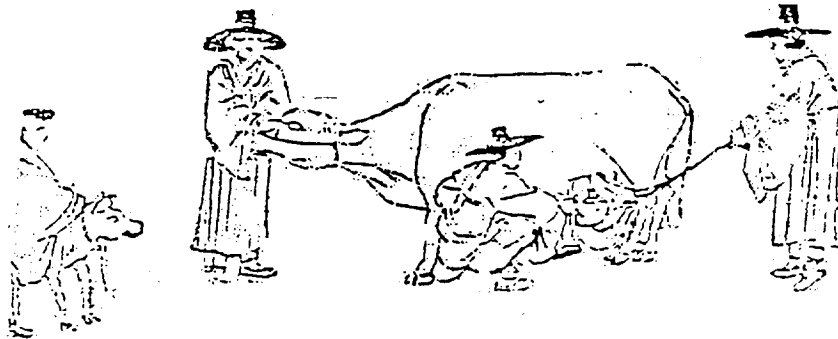
그림 6. 日本 德川時代(1700年代 前期)의 搾乳圖⁹⁾

그림 7. 朝鮮時代 후기의 조영우의 搾乳圖

(암소의 뒷발을 끈으로 묶고, 송아지를 붙잡아 둔 채, 갓을 쓰고 젖을 짜고 있다.)

그리고 牛乳를 짜는 모습은 中國의 그림<그림 4>이나 日本의 그림<그림 6>으로 짐작할 수 있었으나 최근 조선시대 後期의 趙榮祐가 그린 牛乳 짜는 그림이 나타났다<그림 7>.

한편 「東國歲時記」(1849)에 의하니 “內醫院에서는 10月朔日부터 正月에 이르기까지 牛乳酪을 만들어 王에 바치고, 또 耆老所에서도 牛乳酪을 만들어 여러 耆臣들을 봉양하는데 10월에 시작하여 正月보름에 가서 그친다”는 것이다. 耆老所란 正二品 以上을 역임한 重臣가운데서 70歲을 넘은 분들을 모두어 老後의 生活을 돌봐주는 국가기관이다.

그 後 高級 妓房 같은데서 돈 많은 단골손님에게 이 牛乳粥을 내놓게 된 것이다. 주로 늙은 男子의 補養에 좋다하여 마셨던 것이다.

그러면 朝鮮時代に 牛乳의 效能을 어떻게 보았는가 알아보자.

「壽養叢書類輯」(李昌庭 1620)과 「林園十六志」 壽親養老 編에서 牛乳·牛乳煎·牛乳粥 등이 老人의 기운을 돌리고 여러 病을 고치는데 좋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朝鮮時代의 王들은 흔히 耆老所에 牛乳를 내렸던 것이다.¹²⁾

한편 日本 江戸時代 11代 將軍인 德川家齊(1787~1837)는 牛乳를 마시고 長壽하였고, 40人의 妻妾, 55人의 子女를 두었는데 이것은 牛乳를 먹은 탓이라고 하였다.¹⁴⁾

이번에는 朝鮮時代 本草書속의 牛乳關係記事를 보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最古의 本草書인 高麗

時代의 「鄉藥救急方」(1236~1251)에 酥·牛乳, 朝鮮時代 世宗代의 「鄉藥集成方」(1433)에는 牛乳·酥·醍醐를 들고 있으며, 「東醫寶鑑」(1611)도 마찬가지이다.¹²⁾

牛乳 및 乳製品의 本草學的 效能은 「神農本草經集注」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의 本草書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中國의 本草書는 傳統을 계속 이어받는 保守性이 매우 強하다. 새로운 本草書는 從前의 本草書를 整理하고 여기에 새로운 知識을 補充해나가는 形式을 取하고 있다. 中國에서 宋時代에 종전부터 내려오는 本草書를 集大成하고 이것을 補完한 「經史證類大觀本草」를 만들었다. 許浚의 「東醫寶鑑」은 이 책까지를 引用하였고 明代의 「本草綱目」을 보지 못한채 만들어진 것이다. 「東醫寶鑑」의 引用書名인 「本草」란 바로 「經史證類大觀本草」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東醫寶鑑」에서는 “牛乳의 性は 微寒, 味는 甘이오 無毒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증세를 다스리고 皮膚를 부드럽게 하며 心·肺를 튼튼하게 지니고 熱毒을 淸인다”고 「神農本草經集注」와 비슷한 말을 하였다. 또 “반드시 한번 끓인 후 식혀서 마실 것, 만일 날것을 마시면 이질이 생기고 뜨거운 것을 마시면 막혀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 단번에 마셔 버릴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마셔라”고 唐代의 「本草拾遺」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에서는 酥·酪·醍醐의 性を 각각 설명하고, 牛乳에서 酪·酥·醍醐의 차례로 만들어 내는 가운데서도 酪은 牛乳 위에 한 겹으로 덮인 것이고, 酪 위에 기름처럼 엉키는 것이 醍醐이니 醍醐는 많이 얻을 수 없어서 매우 甘美롭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에서는 牛乳·酪·酥·醍醐를 똑똑히 分類하여 제각기의 性を 들고 제각기의 製法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나라 實生活에는 이러한 분명한 區別이 없고 牛乳粥(牛酪粥·酪粥)이 쓰이고 있을 뿐이고, 本草學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實際로 만들지도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本草學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傳統만을 固守하는데 起因한 것 같다.

V. 近代의 乳文化

19世紀에 접어들어 列強의 東洋侵略이 시작되고 1854年 日本이 비로소 開國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外國 배가 드나들게 되었다. 1876년에는 雲揚號事件을 契機로 日本과 江華島條約을 맺게 되고 歐美列強에도 開港하지 않을 수 없게되니 이 나라에 開化의 물결이 밀려들어 왔다.

이 무렵의 國內風習을 적어놓은 「朝鮮教會史序論」(1874)¹⁵⁾에서 “牛乳와 butter 는 알지도 못하고, 動物의 기름을 쓸 줄 모른다”고 하였다. 또 1891年 宣教師로 來韓한 게일의 「코리언 스케치」¹⁶⁾에 의하니 그의 집 下人이 소 한마리를 사서 牛乳 짜다는 것이다. 이 때의 소는 물론 農牛이었다. 그 후 소는 여섯마리로 늘어났고 牛乳의 일부는 이웃에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웃이란 西洋사람들이었을 것이다. 西洋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당장에 필요했던 牛乳는 아쉬운데로 우리나라의 農牛에서 얻은 乳를 利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日本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1856年 日本에 온 미국 領事 하리스는 牛乳를 求하지 못하여 애먹고 있는 가운데서 그의 日本人 妾이 農民들에 부탁하여 農牛에서 牛乳를 짜게 하였는데 當時 牛乳 1合의 價格이 白米 1斗이었다고 한다. 이 무렵부터 日本政府도 農牛에서 搾乳하여 外國使臣에 給與하였으나 그 量에는 限度가 있었다.

그리하여 日本에 오는 外國人은 本國에서 煉乳를 가져오기도 하고 염소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또 航海 中の 배에서 牛乳를 공급받기도 하고, 배에 싣고 다니는 西洋乳牛를 구입하여 자기집에서 사육하여 牛乳를 짜기도 하였다는 것이다.⁴⁾

그러다가 明治時代(1868~1912)에 접어들어 西洋人도 많아지고 日本人도 점차 牛乳를 마시게 되었다. 1871년경부터 네덜란드·영국 등지에서 本格的으로 西洋乳牛가 도입되었고, 1872~3年頃 東京에 牛乳店이 나타났으며, 1874~5년에는 粉乳를 만들고, 牛乳를 농축하여 성냥갑처럼 몽친 것도 나타났다. 또 牛乳販賣店에서 牛乳를 각 家庭에 配達하게 되었다. 1871년에는 育兒用 牛乳병(商品名→乳母不用)이 “新聞雜誌”이란 雜誌에 廣告되었고, 1872년에는 「牛乳考」란 近藤芳樹氏의 著書가 나오기도 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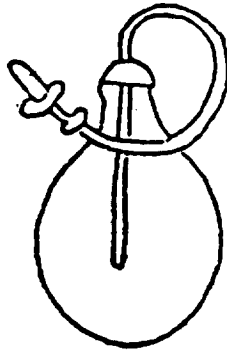


그림 8. 乳母不用

牛乳는 美國 名産牛에서 얻은 것이 最上이고, 病牛乳와 異物이 섞인 것을 禁한다. 1871年の「新聞雜誌」第 19號

또 日本 警視廳에서는 1874년 吮소를 搾乳所에 못 두게 하니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牛乳業者가 모이게 되니 여기서 “東京牛乳 搾取組合”이 發足하였고, 1886년에는 “東京府下 牛乳搾取販賣營業組合”으로 名稱을 바꾸고, 組合員數는 130名에 이르렀던 것이다.⁶⁾

이와 같이 牛乳마시기에 길들인 日本人들이 開港된 이 땅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살게 되니 여기서 또 牛乳供給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1800年代에는 서울시內에 牛乳를 짜서 販賣하는 業者가 없었다. 1900년에 日本人 鹿子木要之助란 사람이 1800年代 中葉 日本에 온 西洋사람처럼 農牛 한 마리를 購入하여 自家用으로 搾乳하였는데 남으면 無料로 知人に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無料로 자꾸만 얻어 마실 수 없어서 모두들 協議하여 飼料代나마 支拂기로 하다가 마침내는 1900年 12월에 牛乳搾取 營業 許可를 받았고, 1902년에는 平山政吉⁷⁾가 牛乳營業의 許可를 받았다<그림 9>. 이 때까지의 젓짜는 소는 모두 朝鮮農牛이었다.¹⁷⁾

그런데 1903년부터 牛疫이 발생하여 많은 소가 斃死하였다.

1902년에는 당시 大韓帝國의 農商工部 技師로 있던 프랑스인 ‘쑤트’가 本國에서 西洋乳牛 11頭를 수입하여 지금의 新村驛부근에서 飼育하여 서울에 살고 있던 外國人 相對로 牛乳를 販賣하였는데 1903년의 牛疫 때문에 全部가 斃死해 버렸다. 당시 “쑤트”는 “...어쩌면 日本 政府가 사람을 시켜서

病毒을 深夜에 남몰래 우리 牧場에 던져 넣은 결과로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 꼭 그렇다고 생각된다. 나는 日本人의 비열한 根性を 원망한다”고 슬회하였다.⁴⁾

또 「韓國農業經營論」(1904)¹⁹⁾에 의하니 “牛乳는 종래 한국사람들이 마시지 않았으니 搾乳의 습관이 없었으나 外國人の 居住以來 약간 이용하게 되었다. 農牛의 泌乳量은 매우 적어서 가장 많아도 1日 3升을 넘지 못하고 보통은 1升~1升5合 정도이다. 泌乳量도 적거니와 泌乳期도 짧아서 3個月을 넘지 못하니 자칫하면 搾乳에 의하여 젖꼭지에 균열이 생기는 일도 있다. 그리하여 佛人이 서울에 西洋乳牛를 수입하였고, 日本人도 元山에 西洋乳牛를 수입한 적이 있으나 牛疫 때문에 다같이 全滅되고 말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佛人 “숫트”가 乳牛를 수입한 무렵 日本人도 西洋乳牛를 수입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牛疫事件 以後인 1904年, 1905年에 農牛에 의한 搾乳所가 서울에 3군데 다시 생겼다. 그러다가 1906년에는 荒井初太郎 <그림 10>가 萬里峴에 搾乳所를 열었는데, 여기서는 Horstein種 숫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를 수입하였다. 또 1906년에는 韓國 畜産株式會社 <그림 11>가 發足하여 Horstein種 등 西洋乳牛 10餘頭를 수입하니, 한국에는 搾乳所가 다섯군데, 乳

牛乳大王 獨立
平山牧場 主義
獨立
○ 第一健康牛乳
○ 完全飼料
○ 特別優良牛乳
○ 價格競爭者
但一合對于金八錢
創立 民國三十三年 電話 二三三三

그림 9. 平山牧場, 每日申報(明治 44年 7月 2日 許可) <1902>, 創業(明治 30年) <1897>

陸軍 京城 大醫院 指定用
寒乳의 滋養 効果
一年間の 滋養 供給
寒中에 在る 寒中 最大 滋養 効果
寒中 滋養 缺乏 病에 罹하기 容易
寒中 命을 續ける 牛種은
寒中에 最宜한 牛種
寒中이 最宜한 牛種
寒乳의 質及 細菌의 體備等 一切은 既 世評이 有하니 自贊치 아니함
荒井 牧場
電話 一〇五六
荒井 第二牧場
電話 五六四

그림 10. 荒井牧場, 大韓民報(隆熙 4年 1月 13日)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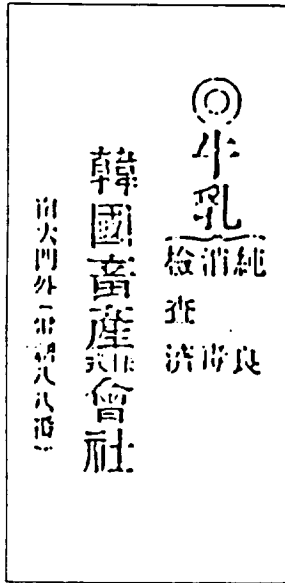


그림 11. 韓國畜産株式會社, 大韓民報 (隆熙 3年 10月 30日)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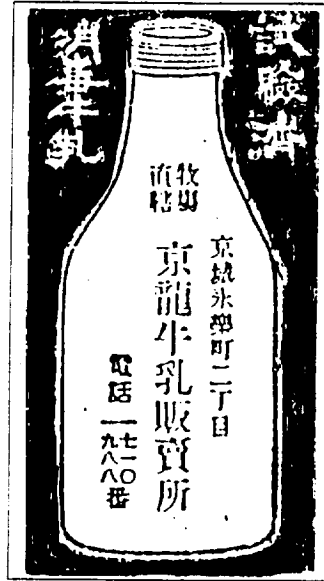


그림 12. 京龍牛乳販賣所, 每日申報 (大正元年 12月 5日) <1912>

牛가 50餘마리에 이르게 되고 牛乳의 하루 販賣量이 1石 以上에 이르렀다. 그래도 牛乳 需要量이 不足해서 煉乳·粉乳를 多量 利用하였으나 점차 搾乳量이 늘어나서 生乳를 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 牛乳를 마시지 않았던 韓國사람의 一部도 牛乳를 마시게 되었다.

한편 大韓帝國의 農商工部에서는 隆熙 2年(1908) 乳用牛인 Ayrshire 3頭를 輸入하여 勸業模範場에서 飼育試驗을 하였고, 隆熙 3年(1909)에는 日本 政府에서 얻은 Simmenthal 種牛 2頭를 韓國中央農會에 내렸다. 韓國牛는 役畜인데 비하여 Simmenthal 是 高原地帶에 알맞고 肉·乳·役의 세 用途를 아울러 갖추는 것이니 이것을 在來種에 交雜을 시켜서 役·肉兼用的 좋은 品種의 소로 育成하고 이것에 乳用價値를 가지는 朝鮮種을 얻고자 하였다.¹⁹⁾

그리고 新聞의 牛乳廣告도 늘어났다<그림 12>.

그 후 1910년에는 나라를 日本에 완전히 빼앗기고, 1911年 朝鮮總督府令으로 牛乳營業取締規則이 制定되었다. 牛乳는 全乳·脫脂乳, 乳製品으로서는 煉乳·粉乳가 있고, 牛乳의 比重 및 脂肪量의 檢定方法을 定하고 있으며, 牛乳搾取場의 規格을 定하고, 搾取不可의 牛病을 규정하였다.²⁰⁾

그러다가 西洋乳牛의 飼育이 더욱 늘어났다. 1915年 忠南 成歡에 赤星鐵馬가 牧場을 만들어 Horstein 種을 飼育하여 生乳를 서울에 販賣하였다. 그리고 江原道 平原郡 洗浦里 一帶에 大牧場地帶가 造成되었다. 이곳의 三橋牧場이 1916年에 許可를 받아 乳牛를 飼育하였고, 또 1920년에는 淮陽郡 蘭谷面에 日本軍에 사로잡힌 독일軍人에 의하여 독일式으로 經營하는 蘭谷機械農場畜産部가 設立되어 乳牛를 飼育하여 牛乳를 공급하였다.^{21,22)}

그러나 이들 牧場의 乳牛 飼育은 매우 小規模로서 成歡牧場이 1921年 韓牛(암컷 105, 숫컷 30) 135頭에 비하여 西洋 乳牛(암컷 13, 숫컷 2)는 15頭에 지나지 않았고, 荒井牧場은 1925年에 搾乳牛 21頭, 三橋牧場이 1925年에 15頭, 蘭谷機械農場畜産部에는 1925年에 Horstein 種 7頭, Simmenthal 種 1頭, 雜種乳牛 3頭이었다. 그러다가 1928年에 乳牛가 686頭에 이르게 되었다.²³⁾

丑 1. 乳用 牛種類別 頭數 및 搾乳營業形態調查表²⁴⁾

年度	外国種 및 雜種			朝鮮種			計(頭)	搾乳場數	搾乳量(l)
	암	숫	計(頭)	암	숫	計(頭)			
1910	-	-	-	-	-	-	452	61	375,574
1911	-	-	-	-	-	-	508	75	509,784
1912	-	-	-	-	-	-	553	65	542,616
1913	-	-	-	-	-	-	408	63	583,745
1914	427	42	469	199	10	209	678	64	600,386
1915	420	60	480	143	6	149	629	67	540,200
1916	423	55	478	117	12	129	607	63	529,408
1917	570	75	645	130	15	145	790	60	564,416
1918	559	81	640	115	11	126	766	59	577,972
1919	501	79	580	92	18	110	690	68	613,978
1920	597	68	665	95	12	107	772	72	696,285
1921	608	68	676	97	8	105	781	76	725,198
1922	643	65	708	100	8	108	816	76	771,869
1923	664	61	725	105	9	114	839	86	901,361
1924	661	88	749	70	8	78	827	103	1,112,659
1925	-	-	-	-	-	-	686	66	395,162
1926	-	-	-	-	-	-	759	74	1,589,555
1927	835	80	915	38	2	40	955	99	1,126,355
1928	1,024	93	1,117	44	2	46	1,163	107	1,306,767
1929	1,155	117	1,272	25	6	31	1,303	106	1,448,685
1930	1,284	152	1,436	23	5	28	1,464	121	1,627,565
1931	1,382	165	1,547	29	3	32	1,579	132	1,738,982
1932	1,531	164	1,695	25	3	28	1,723	132	1,908,574
1933	1,456	138	1,594	14	2	16	1,610	143	2,098,253
1934	1,569	138	1,707	15	-	15	1,722	169	2,698,848
1935	1,504	139	1,643	44	4	48	1,691	177	2,646,985
	搾乳頭數(頭)								
	Horstein種	Ayrshire種	其他 外国種	朝鮮種		計			
1936	1,381	59	87	12		1,539	173	3,409,589	
1937	1,352	41	69	8		1,470	165	3,149,913	
1938	1,370	39	70	5		1,484	165	3,483,510	
1939	1,427	30	37	4		1,498	166	3,697,216	
1940	1,545	35	38	-		1,618	162	3,691,604	

이번에는 牛乳 搾取量을 알아보자. 1910년에 약 37만 l 이던 것이 1924년에 100만 l, 1925년 40만 l로 격감하였다. 그 후는 꾸준히 增加하여 1936년에는 약 341만 l를 생산하였다. ^{23,24)}<표 1>

표 2. 牛乳를 짜는 牛一頭當의 泌乳量의 變化

年度	一頭當 泌乳量 (l)	年度	一頭當 泌乳量 (l)	年度	一頭當 泌乳量 (l)
1910	831	1919	890	1928	1,492
1911	1,003	1920	902	1929	1,156
1912	981	1921	929	1930	1,142
1913	1,431	1922	946	1931	1,100
1914	886	1923	1,074	1932	1,108
1915	859	1924	1,345	1933	1,303
1916	872	1925	576	1934	1,567
1917	714	1926	2,103	1935	2,157
1918	755	1927	1,174	1936	2,215

표 3. Butter 生産量

年度	生産量 (kg)	年度	生産量 (kg)	年度	生産量 (kg)
1930	4,246	1934	2,155	1938	3,262
1931	3,443	1935	1,925	1939	185
1932	10,958	1936	1,578	1940	609
1933	4,023	1937	2,506		

다음은 牛乳를 짜는 牛一頭當의 泌乳量을 보면 그 增進이 매우 커서 1910년의 831/은, 1936년에 2215/로서 2倍半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1頭當 泌乳量이 늘어나는 것은 洋種 또는 그 雜種의 頭數가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표 2>

한편 乳製品은 어떠하였을까? 乳製品으로서 煉乳·butter·cheese·cream·乳菓·乳酸 醱酵乳 등 여러 가지 있으나 韓國에는 煉乳·粉乳·butter·乳酸醱酵乳 등이 있었다. 그리고 日政時 日本人은 butter를 牛酪으로 表記하고 있었다.^{25,26)}

煉乳·粉乳는 韓國內에서 1920年代에는 製造家가 없어서 生産이 없었다. butter는 各 牧場마다 조금씩 生産하였으나 그들의 生産量을 똑똑히 알 수가 없으나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製品인 水原 butter의 生産量은 다음과 같다.

1921年 882 pound 1922年 837 pound 1923年 833 pound
 1924年 1233 pound 1925年 888 pound

韓國 全體의 生産量은 1927年 5097 pound 인데 비하여 消費量은 63204 pound 이다.

그리고 朝鮮總督府 統計表에 의한 butter 生産量은 <표 3>과 같다.²⁴⁾

또 煉乳의 輸移入量이 758579斤에 이르고 이 밖에 cheese·cream·乳菓子·乳酸醱酵乳(Calpis) 등도 輸移入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生産量보다 消費量이 越等 많기 때문에 外國 특히 日本의 乳製品이 많이 들어와서 당시의 新聞에 每日같이 이들의 廣告가 나오고 있었다.²⁷⁾<그림 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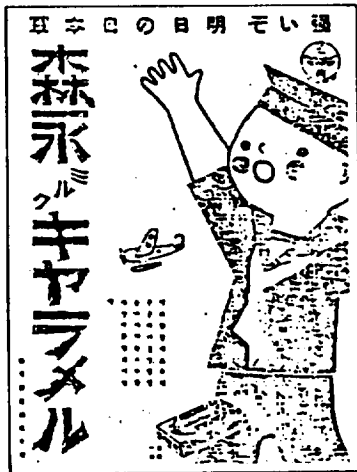


그림 13. 毎日申報 1937. 10. 4



그림 14. 毎日申報 1939. 5. 3



그림 15. 毎日申報 1938.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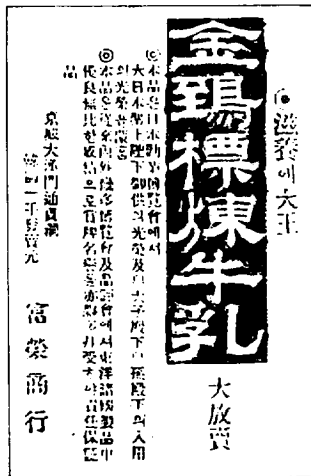


그림 16. 萬歲報(光武 11年 2月 9日)<1907>.



그림 17. 毎日申報 1937. 6. 28



그림 18. 毎日申報 1938.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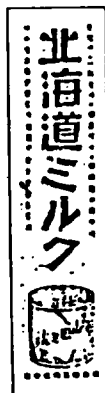


그림 19. 毎日申報 1937. 10. 29



그림 20. 毎日申報 1939.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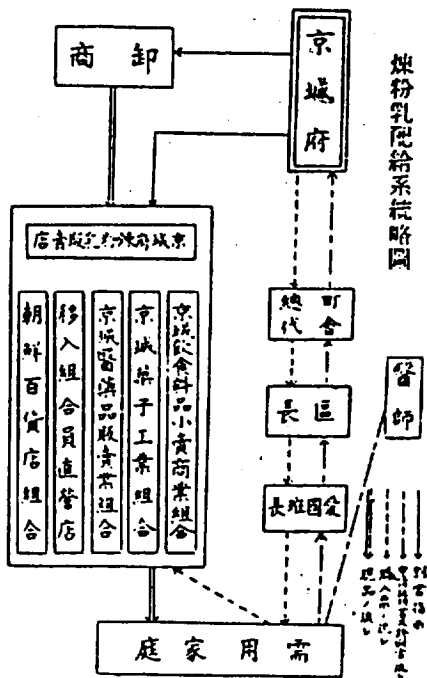


그림 21. 煉乳·粉乳 配給 系統 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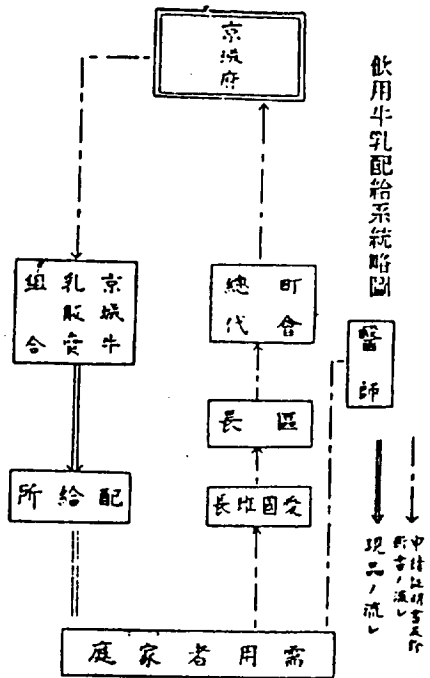


그림 22. 飲用 牛乳 配給 系統 略圖

月分煉粉乳購入票

購入者住所氏名
 購買乳兒氏名及
 購入者トノ職稱

一、数量
 二、月分
 三、有付明細日付
 四、購入者所在地及商店名
 五、發行年月日

昭和 年 月 日

月分煉粉乳購入申請證明書

購入者住所氏名
 購買乳兒氏名及
 購入者トノ職稱

所製飲料乳
 一、乳粉其他ト煉粉乳ト混用(該當セザル項)
 二、煉粉乳ノミヲ使用(目ヲ消スコト)

右者ハ本愛國班員ニシテ乳兒用煉粉乳ノ購入ヲ要スルモノト認ム

昭和 年 月 日

愛國班長住所氏名印

그림 23. 煉乳·粉乳 購入申請 證明書 및 購入票

參考文獻

1. 李盛雨(1978), 高麗以前 韓國食生活史研究, 鄉文社.
2. 石毛直道(1989), 世界に於ける 乳利用の 歴史, 韓國食文化學會 乳文化심포지움.
3. 袁庭棟(1984), 我國何時食牛奶, 中國烹飪 33期.
4. 加茂儀一(1976), 日本畜產史(食用·乳酪篇), 法政大學出版局.
5. 萬陵(1986), 說醍醐, 中國烹飪 63期.
6. 關根眞隆(1969), 奈良朝食生活の研究, 吉川弘文館.
7. 渡邊實(1964), 日本食生活史, 吉川弘文館.
8. 和仁皓明(1987), 酪酪考, 飲食史林 7號.
9. 露木英男(1972), 食品の 履歷書, 女子營養大學.
10. 陳存仁(1969), 中國醫學史, 中國醫學研究所.
11. 奧村彪生(1989), 古代食(飛鳥, 奈良), Foodeum 1989-5.
12. 李盛雨(1981), 韓國食經大典, 鄉文社.
13. 金永上(1989), 서울 六百年, 한국일보사.
14. 木村修一等(1987), 食生活論, 同文書院.
15. Claude Charles Dallet(1874), 朝鮮教會史序論, 探求堂(1966).
16. James Scarth Gale(1898), Korean Sketches, 玄岩社(1970).
17. 管沼寒洲(1924), 京城に於ける 搾乳業の 沿革, 朝鮮の畜產 3-2.
18. 吉川祐輝(1904), 韓國農業經營論, 大日本農會.
19. 小早川九郎(1944), 朝鮮農業發達史, 朝鮮農會.
20. 吉田雄次郎(1917), 朝鮮畜產例規, 朝鮮畜產會.
21. 吉田雄次郎(1926), 朝鮮の於ける 牧場の 現況, 朝鮮 大正 15年 1月號.
22. 佐藤榮枝(1933), 朝鮮の特産とどこに何かアルカ, 朝鮮鐵道協會.
23. 吉田雄次郎(1933), 著しく殖えた 朝鮮の畜產, 朝鮮 昭和 8年 10月號.
24. 朝鮮總督府(1942), 農業統計表(昭和十五年), 朝鮮總督府.
25. 吉田雄次郎(1928), 朝鮮畜產加工品, 朝鮮 昭和 3年 3月號.
26. 吉田雄次郎(1928), 統計上より見たる 朝鮮の畜產加工品, 朝鮮の畜產 7-5.
27. 吉田雄次郎(1927), 乳製品·獸鳥肉鷄卵·罐詰食品に関する調査(京城府 重要商品調査 第4輯), 京城府.
28. 京城府 總務部 國民總力課(1941), 京城府に於ける 生活必需品配給制の實情, 京城府 總務課 國民總力課.